

## ● 신.약.편

장성민 <<< 한국성서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1. 본문 : 로마서 6장 10-11절

6:10 ὁ γὰρ ἀπέθανεν, τῇ ἁμαρτίᾳ ἀπέθανεν ἐφάπαξ· ὁ δὲ ζῆν, ζῆν τῷ θεῷ 6:11 οὕτως καὶ ὑμεῖς λογίζεσθε ἑαυτοὺς [εἶναι] νεκροὺς μὲν τῇ ἁμαρτίᾳ ζῶντα δὲ τῷ θεῷ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 2. 본문 번역

#### 가. 개역개정

6:10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6:11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 나. 새번역

6:10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6:11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공동번역개정

6:10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느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6:11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 그와 함께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라. NIV

6:10 The death he died, he died **to sin** once for all; but the life he lives, he lives **to God**. 6:11 In the same way, count yourselves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마. NRSV

6:10 The death he died, he died **to sin**, once for all; but the life he lives, he lives **to God**. 6:11 So you also must consider yourselves dead **to sin** and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바. 본문에 대한 사역

6:10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죽으셨으며, 그것도 **죄에 대항하여**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살아계시며,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계신다. 6:11 이와 같이 바로 너희도 자신을 한편으로는 **죄에 대항하여** 죽은 자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 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

3. 동사분해

#### 가. 6장 10절

*ἀπέθανεν*(*ἀποθνήσκω*[to die]의 단순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녀)가 죽었다’) / *ζῆ*(*ζάω*[to live]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녀)가 살아 있다’)

#### 나. 6장 11절

*λογίζεσθε*(*λογίζομαι*[to account, to reckon]의 현재, 중간태, 명령법, 2인칭, 복수, ‘너희는 ~라고 간주하라, ~라고 여기라’) / *εἶναι*(*εἶμι*[to be]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 ‘~인 것, 존재하는 것’) / *ζῶντας*(*ζάω*[to live]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대격, ‘살아 있는’)

### 4. 용어 및 문법 사항 설명

#### 가. 용어 설명

1) *ὁ γάρ* : *ὅ*는 중성 단수 대격 관계대명사이다. 여기서의 대격은 형용사와 그것에 의해서 수식을 받는 명사를 대신하여 동일한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사용된 ‘내용의 대격’(the accusative of content)이다. 본래는 *τὸν γὰρ θάνατον, ὃν ἀπέθανεν*(왜냐하면 그는 죽음을 죽으셨다)으로 표현되어야 하지만, 동사 *ἀπέθανεν*의 목적어인 *τὸν θάνατον*이 동사와 동일한 어근의 동족목적어이므로 이를 간단하게 대격 관계대명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아래 문법 사항 설명 참조).

2) *ἐφάπαξ*: 단번에(once for all). 이 말은 보다 순환적인 역사관을 가진 신비 종교와 달리 유대교 종말론에 기초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관점을 강조하는 말이다.

3) *ὁ δέ* : *ὅ* *δέ*에서 *ὅ*는 앞선 *ὁ γάρ*와 마찬가지로 ‘내용의 대격’으로 사용된 중성 단수 대격 관계대명사이다. 본래는 *τὴν δὲ ζωὴν, ἣν ζῆ*(그러나 그는 생명을 누리고 계신다)라고 표현되어야 하지만 동사 *ζῆ*의 목

적어인  $\tau\eta\nu \zeta\omega\eta\mu\iota$ 이 동사와 동일한 어근의 동족목적어이므로 이를 간단하게 대격 관계대명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아래 문법 사항 설명 참조).

4)  $\lambda\omicron\gamma\iota\zeta\epsilon\sigma\theta\epsilon$  :  $\lambda\omicron\gamma\iota\zeta\omicron\mu\alpha\iota$ [to account, to reckon]의 현재, 중간태, 명령법으로서, 현재 명령법은 “지속적으로 이리이러하게 여기라”(do this continuously), “이리이러하게 여기기를 계속하라”(continue doing this)라는 의미이다.

5)  $\zeta\omega\iota\nu\tau\alpha\varsigma \tau\hat{\omega} \theta\epsilon\hat{\omega}$  :  $\zeta\acute{\alpha}\omega$ [to live]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로서 명사로 사용된 분사이다. 분사와 함께 사용된 여격( $\tau\hat{\omega} \theta\epsilon\hat{\omega}$ )은 ‘존중의 여격’(the dative of respect) 또는 ‘개인적 관심이나 이익의 여격’(the dative of personal interest or advantage)이다(아래 문법 사항 설명 참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다.

#### 나. 문법 사항 설명

헬라어에서 대격이 어원적으로나 의미에 있어서 동사와 동족어인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대격을 ‘내용의 대격’(the accusative of content) 또는 ‘동족의 대격’(the cognate accusative)이라고 하며 문장 내에서는 동사의 직접 목적어로 사용된다. 내용의 대격으로 사용되는 대격 명사에 한정어가 뒤따를 경우 전체 구조는 더욱 강조의 의미를 강하게 지니게 된다(Daniel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Michigan: Grand Rapids, 1996], 189). 이러한 용법의 대격은 내적인 내용(inner content)을 표현하거나 객관적인 결과(objective result)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심지어 개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어근이 다른 동족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Nashville: Broadman Press, 1923], 477 이하). 예를 들어 마태복음 2장 10절,  $\acute{\iota}\delta\omicron\nu\tau\epsilon\varsigma \delta\grave{\epsilon} \tau\omicron\nu \acute{\alpha}\sigma\tau\acute{\epsilon}\rho\alpha \acute{\epsilon}\chi\acute{\alpha}\rho\eta\sigma\alpha\nu \chi\alpha\rho\acute{\alpha}\nu \mu\epsilon\gamma\acute{\alpha}\lambda\eta\nu \sigma\phi\acute{o}\delta\rho\alpha$ (그들이[동방박사들] 그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에

서 *ἐχάρησαν χαρὰν μεγάλην*은 문자적으로 “큰 기쁨을 기뻐하였다”라는 뜻으로 동방박사들의 마음에 담겨 있는 내적인 심리 상태를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48절의 *ὁ δὲ μὴ γνοῦς, ποιήσας δὲ ἄξια πληγῶν δαρήσεται ὀλίγας*(“알지 못하고 맞을 만한 일을 한 자는 적은 [매를] 맞을 것이다”)에서 대격 형용사 *ὀλίγας*(적은)는 수식을 받는 명사 *πληγῶν*(매, 타격)가 생략된 표현으로서, 동사(*δαρήσεται*, 매를 맞다)와 의미상 동족어인 목적어 *πληγῶν*(매, 타격)를 표현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사용된 ‘내용의 대격’이다.

주의할 점은 내용의 대격으로 사용되는 명사와 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대신하여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대격 형용사 외에 대격 대명사도 동일하게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F. Blass, A. Debrunner and Robert W. Funk,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 154). 이 경우 독립적으로 사용된 대격 대명사는 본래 강조의 의미로 사용된 내용의 대격이 생략된 표현일 경우가 많으므로, 본래의 강조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본문의 *ὁ γὰρ*에서 *ὅ*는 중성 단수 대격 관계대명사로서 형용사와 그것에 의해서 수식을 받는 ‘내용의 대격’ (the accusative of content)을 대신하여 독립적으로 사용된 대명사이다. 즉 본래는 *τὸν γὰρ θάνατον, ὃν ἀπέθανεν* [왜냐하면 그는 죽음을 죽으셨대]으로 표현되어야 하지만, 동사 *ἀπέθανεν*의 목적어인 *τὸν θάνατον*이 동사와 동일한 어근의 동족목적어이므로 이를 간단하게 대격 관계대명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생략되기 이전의 형태인 *τὸν γὰρ θάνατον, ὃν ἀπέθανεν*이 ‘동족의 대격 또는 내용의 대격’으로서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생략된 표현인 *ὁ γὰρ ἀπέθανεν*도 강조의 의미를 살려서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죽으셨기 때문이다”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또한 헬라이어 여격은 동작이나 행동의 주된 관심이 되는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이를 ‘관심의 여격’ (the dative of interest)이라

고 부르는데, 이러한 용법의 여격은 관심의 대상에 대한 주어의 태도에 따라 ‘유익의 여격’ (the dative of advantage, *dativus commodi*)과 ‘불이익의 여격’ (the dative of disadvantage, *dativus incommodi*)으로 나뉜다(F. Blass, A. Debrunner and Robert W. Funk,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 188). 유익의 여격은 관심이 되는 대상에 대한 주어의 태도가 긍정적인 경우에 사용되고 불이익의 여격은 부정적인 경우에 사용된다. 그러므로 유익의 여격은 “~의 유익을 위해서”(for the benefit of), 불이익의 여격은 “~에 불리하도록”(to the disadvantage of)이라고 번역해야 한다(Daniel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Michigan: Grand Rapids, 1996], 142). 본문에 나오는 여격이 바로 이러한 관심의 여격으로서 각각 τῇ ἀμαρτίᾳ는 불이익의 여격으로, τῷ θεῷ는 유익의 여격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τῇ ἀμαρτίᾳ는 “죄에 대하여”가 아니라 “죄에 대항하여”(against sin)로, τῷ θεῷ는 “하나님에 대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for God)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죄에 대항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스스로를 죄에 대항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 있는 자로 여겨야 하는 것이다.

## 5. 설교에 적용하기

본문은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는 단락(6:1-11)의 결미(結尾)에 해당하는 구절로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12절 이하의 권고에 앞서 주어진 예비적인 명령이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세례를 ‘주권의 이동’ (a change of lordship)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바울에 따르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는 예식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사망-부활’을 통해서 ‘죄’라는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라는 새로운 권세 아래로 복속되었다(6-7절).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을 다스리는 두 가지 권세인 죄와 하나님 가운데 죄에 대하여는 ‘대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즉 바울은 본문에서 단순히 ‘사망-부활’의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하나님이라는 대상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회심과 그에 따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빌 1:27)이 사라지고 그저 ‘종교 소비’를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Sunday Christian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 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은혜 아래 살아가야 한다는 바울의 권고(6:12-14)는 우리의 신앙 태도를 향하여 감히 외면할 수 없는 경종(警鐘)을 울리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장성민** 경북대학교(B.A.)를 나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Th.M.)에서 공부했다. 지금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박사과정 신약학 전공 중에 있으며 본 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있다.